

영생에 대하여

About Eternal Life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릅니다.

이 지구도 수명이 있고, 처음 지어진 모든 피조물도 결국 사라집니다.

A person is born and eventually reaches death.

The earth also has a lifespan, and every created thing will eventually pass away.

에덴동산에서 죄가 들어온 뒤 모든 피조물 안에 악과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This is because after sin entered in Eden, evil and death entered all creation.

에덴동산에는 본래 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순간, 인간은 죄와 사망 아래 들어갔습니다.

There was originally no evil in Eden.

But the moment man disobeyed God's Word and ate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mankind came under sin and death.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창3:23-24).

Therefore God drove Adam out of Eden (Genesis 3:23-24).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담의 죄로 시작된 타락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To enter heaven, we must be restored to the state God desires.

We must turn back from the fall that began with Adam's sin.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Yet no human being can become righteous by himself.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That is why Jesus shed His blood.

When we rely on the blood of Jesus and repent, God washes away our sins and counts us as righteous.

사람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창2:17, 창3:6).

No matter how hard a person tries to become righteous, he cannot become righteous by his own strength.

This is because sin entered humanity when man disobeyed God's Word in Eden (Genesis 2:17; 3:6).

선악과를 먹은 뒤 인간은 죄의 종, 곧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롬6:16).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욕과 저주가 나오고, 마음에서 미움과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After eating the forbidden fruit, man became a slave of sin, that is, a slave of Satan (Romans 6:16).

Therefore curses and abusive words come from the mouth, and hatred and evil thoughts come from the heart.

천국에는 욕과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욕과 저주가 있습니다.

**There are no curses or abusive words in heaven.
But on this earth there are curses and abusive words.**

사탄이 사람의 생각과 입을 사용하여 남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This is because Satan uses human thoughts and mouths to trouble and wound others.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What is eternal life?
John 17:3 says that eternal life is to know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He has sent.

여기서 “그 아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나눕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따로 아들을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Because of the expression “His Son,” people divide God again.
But Jehovah did not produce a separate son.**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요**1:1,14**).

God, who existed as the Word, came to this earth in flesh (John 1:1, 14).

하나님은 영이십니다(요**4:24**).
영은 피가 없습니다.

God is Spirit (John 4:24).

Spirit has no blood.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려고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Therefore God came in flesh in order to shed blood for human salvation.

That One is Jesus Christ.

말씀은 영입니다(요6:63).

보이지 않는 영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을 보고 만졌습니다(요일1:1).

The Word is spirit (John 6:63).

When the invisible Spirit came in human form, the disciples saw and touched Him (1 John 1:1).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됩니다.

We also believe and know Jesus through the Holy Spirit.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고전3:16).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The body of one who receives Jesus becomes the temple of God (1 Corinthians 3:16),
because God dwells in that person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요20:22).

The Holy Spirit is the Spirit of Jesus (John 20:22).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Therefore we must know that Jesus is God.

Eternal life is not merely living a long time; it is knowing Jesus Christ, the one God, and remaining in Him.

요한복음 4장 36-37절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영혼을
거두시는 일을 보여 줍니다.

John 4:36-37 says that the sower and the reaper rejoice together.

This shows how God sows the seed of the gospel and gathers souls in both the Old and New Testaments.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그 말씀을 듣고 나온 자들을
여호와께로 인도했습니다.

In the Old Testament, Jehovah God sowed His Word through the prophets.

The prophets proclaimed God's Word and led those who heard it back to Jehovah.

신약에는 여호와께서 육체를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마11:28),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4:17)고 외치셨습니다.

In the New Testament, Jehovah came in flesh as Jesus and spoke directly.

He said,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Matthew 11:28), and proclaimed,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Matthew 4:17).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마10:8).

**Jesus also commanded His disciples to preach this gospel.
He told them to heal the sick, drive out demons, and freely
give what they had freely received (Matthew 10:8).**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 복음의 씨를 뿌리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Even today, God sows the seed of the gospel through those
who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It seems that we are speaking, but the Holy Spirit is using our
mouths.**

우리가 말씀을 전하여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전하는 자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전하는 자의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픕니다.

**When we preach the Word and a soul repents and returns, the
preacher rejoices and God rejoices.
But when a person does not change and continues in sin, the
preacher's heart aches and God's heart also aches.**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피
값입니다.
그 피를 믿고 회개하여 새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The blood Jesus shed on the cross is the price paid to save
souls.
When a person believes in that blood, repents, and becomes
a new person, it brings joy to God.**

물세례도, 성령도, 믿음도 핵심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엡4:5).

Baptism, the Holy Spirit, and faith all center on the name of Jesus.

There is one baptism, one faith, and one God (Ephesians 4:5).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Everything is fulfilled in the name of Jesus.

그러나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생명의 떡을 먹여야 할 자리에서
죽음의 떡을 먹입니다.

인간의 교리와 거짓 복음을 먹이면 성도는 천국 길을 잃습니다.

**Yet today many pastors, who should feed the bread of life,
feed the bread of death.**

**When human doctrines and false gospels are given, the
saints lose the way to heaven.**

전 세계 많은 교회가 허가받은 이단처럼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정통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과거 현재 미래 죄 사함, 회개 없는 구원을 가르칩니다.

**Many churches in the world have become like approved
heresies.**

**Outwardly they look orthodox, but in reality they teach
once-saved-always-saved, forgiveness of past, present, and
future sins, and salvation without repentance.**

성령 훼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말합니다.

베리칩을 받으면 회개해도 지옥 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씻는다고도 말합니다.

**They say blasphemy against the Holy Spirit cannot be
forgiven, yet they also say all past, present, and future sins**

are already forgiven.

They say one who receives the mark can go to hell even after repentance, yet also say Jesus' blood cleanses all sin.

이런 말들은 서로 맞지 않습니다.

These claims contradict one another.

성경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 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여기저기 떠돌다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립니다(시1:4).

**The Bible must be yes when it is yes, and no when it is no.
If there is no certainty, people wander here and there and are tossed like chaff in the wind (Psalm 1:4).**

알곡은 뿌리를 내립니다.

옥토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심령입니다.

The grain takes root.

Good soil is the heart that receives God's Word.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뿌리가 내려야 환난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When the Word takes root in the heart, the person does not shake even when hardship and testing come.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사43:11), “나 전에도 나 후에도 다른 신이 없다”(사43:10)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Jehovah said through the prophets, “Apart from me there is no savior” (Isaiah 43:11), and that before and after Him there is no other God (Isaiah 43:10).

These words testify of Jesus Christ who was to come.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는 많았습니다.

아합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가 왕에게 거짓 평안을 말했지만,
미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왕상22장).

**There were many false prophets in the Old Testament.
In Ahab's time, many prophets spoke false peace to the king,
but only Micaiah proclaimed God's Word (1 Kings 22).**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면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듣기 좋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면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When a lying spirit enters the mouths of prophets, they all
speak the same thing.
But even if the message sounds pleasant, if it is not from
God, it leads people to death.**

오늘날에도 거짓 예언과 거짓 기적은 많습니다.

금가루, 금이빨, 천사 털 같은 표적을 좇다가 말씀을 잃으면 결국
사탄에게 속습니다.

**Even today there are many false prophecies and false
miracles.**

**If people chase signs such as gold dust, gold teeth, or angel
feathers and lose the Word, they are deceived by Satan.**

은사와 능력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표적일 뿐입니다.
표적이 말씀보다 앞서면 그 표적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Gifts and power are only signs meant to lead people to God.
If signs come before the Word, they make people proud and
eventually destroy the soul.**

사도 바울도 복음을 뿌렸습니다.

그는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전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The apostle Paul also sowed the gospel.

He proclaimed that there is no savior except Jesus, an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he drove out demons, healed the sick, and even raised the dead.

그러나 바울의 삶은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으나, 주님을 만난 뒤에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Yet Paul's life was not outwardly glorious.

He had persecuted believers in Jesus, but after meeting the Lord, he became a servant who suffered for the gospel.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할 자격을 얻습니다(행1:8).

그러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은사에 빠지고, 은사 때문에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When a person receives the Holy Spirit, he receives power to witness (Acts 1:8).

But if he cannot discern by the Word, he may fall into gifts and become proud because of them.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았지만 교만하지 않도록 사탄의 가시를 받았습니다(고후12:7).

하나님은 큰 체험을 주신 자도 낮추시고 훈련하십니다.

The apostle Paul saw heaven, but he received a thorn in the flesh so that he would not become proud (2 Corinthians 12:7). God humbles and trains even those who receive great experiences.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지옥 체험이 교만이 되면 오히려 멸망의 길이 됩니다.

Seeing heaven and hell does not automatically lead a person to heaven.

If such experiences become pride, they can become a road to destruction.

영생은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체험은 사람을 말씀으로 이끌어야지, 사람을 체험 자체에 묶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Eternal life is not an experience; it is knowing, believing, and obeying Jesus.

Experiences must lead people to the Word; they must not bind people to the experience itself.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John 5:24 says that whoever hears Jesus' Word and believes the One who sent Him has eternal life and will not be judged. To pass from death to life means to enter Jesus.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요5:25)는 말씀은 흙 무덤 속 시체가 나중에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와 율법 아래 죽어 있던 영혼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The words, “the dead will hear the voice of the Son of God, and those who hear will live” (John 5:25), do not mean that corpses in graves will later rise.

They mean that souls dead under sin and law hear Jesus' voice and live.

무덤은 우리의 흙집, 곧 육체를 가리킵니다.

흙으로 지어진 육체 안에 있는 영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때 생명을 얻습니다.

**The grave points to our house of dust, that is, the body.
When the spirit inside this body of dust hears Jesus' voice
and repents, it receives life.**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무덤 속에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을 입고 천국에 들어갑니다(요5:29).

Those who die in the Lord do not sleep in the grave; they rest in the Lord.

Those who keep faith until death receive the resurrection of life and enter heaven (John 5:29).

죽은 자가 무덤 속에 잠잔다고 믿으면, 사람은 시체와 묘지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숭배로 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은 뒤 곧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가르칩니다.

**If people believe that the dead sleep in graves, their hearts are drawn to corpses and tombs, and they fall into idolatry.
But Scripture teaches that after death a person goes either to heaven or to hell.**

요한복음 5장 37-38절은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John 5:37-38 says that no one has heard God's voice or seen His form.

Yet Jesus is the invisible God who appeared in flesh.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요19:30).

구원 사역이 예수님의 피로 완성된 것입니다.

What God had spoken beforehand through the prophets was fulfilled by Jesus on the cross (John 19:30).

The work of salvation was completed by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시며 화목 제물이시고, 동시에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자는 속죄 제물과 제사장을 함께 불드는 것입니다.

Jesus is the atoning sacrifice, the propitiation, and the eternal priest.

Therefore, one who comes in the name of Jesus holds both the sacrifice and the priest together.

구약에는 죄인이 양이나 비둘기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이미 흘려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가 값없이 죄 사함을 받습니다.

In the Old Testament, sinners had to come with the blood of a lamb or a dove.

In the New Testament, because the blood of Jesus has already been shed, the one who repents by faith receives forgiveness freely.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했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John 5:39 says that the Scriptures testify about Jesus.

The Jews studied the Scriptures thinking that in them they

had eternal life, yet they refused to come to Jesus, whom the Scriptures testify about.

구약 성경은 장차 여호와께서 육체를 입고 오실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The Old Testament testifies that Jehovah would come in flesh.

But people read the Scriptures without finding Jesus, and instead tried to kill Him.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그분을 영접할 때 죄 아래 죽어 있던 영이 살아납니다.

To receive eternal life, we must come to Jesus.

Jesus is life, and when we receive Him, the spirit that was dead under sin comes alive.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 아래 있는 자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하지 못합니다.

Those under the law are under sin.

The law reveals sin but cannot save.

죄를 깨달은 자는 예수님의 피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A person who realizes sin must come before the blood of Jesus and repent.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뒤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성은 천국 가는 날까지 올라오므로,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Even after being counted righteous by the blood of Jesus, we must repent whenever we sin.

The sinful nature rises until the day we enter heaven, so we must overcome by faith.

회개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새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A person who does not repent will not change, no matter how much he prays and fasts.

Fasting and prayer are for becoming a new person, not for displaying self-righteousness.

기도했으면 변해야 합니다.

회개했으면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If we have prayed, we must change.

If we have repented, our life must become different.

변화 없이 반복되는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Repeated fasting and prayer without change do not please God.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귀신의 음성도 하나님의 응답처럼 들립니다(요일4:1).

그러므로 모든 응답과 환상과 예언은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If we cannot discern spirits, even the voice of demons may sound like an answer from God (1 John 4:1).

Therefore every answer, vision, and prophecy must be discerned by the Word of Scripture.

사탄은 사람에게 “너는 이미 지옥 갈 자로 정해졌다”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Satan may deceive a person by saying, “You have already been appointed for hell.”

But while a person is alive, there is still an opportunity to repent.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으십니다.

God receives the one who repents.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됩니다(갈3:3).

처음에는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했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We must not begin by the Spirit and finish by the flesh (Galatians 3:3).

Even if we began with repentance and fervent prayer, if the heart does not change, we will eventually fall.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가라지를 당장 뽑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알곡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마13:29-30).

In the church, wheat and weeds exist together.

The Lord said not to pull up the weeds immediately because the wheat may be harmed with them (Matthew 13:29-30).

가라지는 믿음의 사람에게 시험거리도 되지만, 동시에 거울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며 “나에게도 이런 죄성이 없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The weeds become a test to believers, but also a mirror.

When we see the faults of others, we must examine whether the same sinful nature exists in us.

교회 안의 문제를 보고 남만 정죄하면 자신도 가라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알곡으로 자라게 됩니다.

**If we see problems in the church and only condemn others,
we ourselves become weeds.**

**But if we examine ourselves and repent through those
problems, we grow as wheat.**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방법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이미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The Bible continually teaches us the way to heaven.
But people think they are eternally saved simply by attending
church.**

이것은 새 술을 헌 부대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This is like putting new wine into old wineskins.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눅5:38).
새 부대는 회개한 마음이고, 새 술은 성령입니다.

**New wine must be put into new wineskins (Luke 5:38).
The new wineskin is a repentant heart, and the new wine is
the Holy Spirit.**

회개하지 않은 마음에는 성령의 생명이 머물 수 없습니다.

**The life of the Holy Spirit cannot remain in an unrepentant
heart.**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행4:12).

**Pluralism says that all religions have salvation.
But there is no salvation except in Jesus (Acts 4:12).**

불교도, 유교도, 천주교도, 어떤 종교도 예수 없이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Buddhism, Confucianism, Catholicism, or any religion cannot give eternal life without Jesus.

석가모니도 사람이고, 어떤 종교 지도자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Buddha was a man, and every religious leader is a human being.

A human being cannot save another human being.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The only One who shed His blood for our sins is Jesus Christ.

추도예배와 장례예배도 성경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생각하며 예배하는 것은 결국 죽은 자를 신격화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Memorial and funeral worship must also be discerned biblically.

Worship that centers on remembering the dead can become a path of deifying the dead.

사람은 죽으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이고, 회개 없이 죽으면 지옥입니다.

When a person dies, the dust returns to dust, and the soul goes before God.

If the person is in Jesus, it is heaven; if he dies without repentance, it is hell.

그러므로 죽은 자에게 예배하거나 복을 비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Therefore worshiping the dead or praying blessings for them is empty.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무교병과 같습니다.

인간 교리, 우상숭배, 베리칩, 은사주의, 다원주의를 섞으면 유교병처럼 변질됩니다.

The Word of God is like pure unleavened bread.

If human doctrine, idolatry, the mark teaching, gift-centered faith, and pluralism are mixed into it, it becomes corrupted like leavened bread.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핵무기도, 인간 지식도, 교리도 예수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Our greatest weapon is the name of Jesus.

Nuclear weapons, human knowledge, and doctrines are nothing before the name of Jesus.

사탄은 예수도 믿고, 베리칩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교리도 붙잡으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예수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Satan deceives people by telling them to believe in Jesus, believe in the mark teaching, serve idols, and hold doctrines at the same time.

But the Lord tells us to hold only to Jesus.

성찬식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을 주시며,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고전**11:23-25**).

The Lord's Supper must also be understood correctly.

On the night He was betrayed, Jesus gave bread and the cup

and told us to remember His death whenever we eat and drink (1 Corinthians 11:23-25).

떡과 포도주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는 표입니다.

**The bread and wine themselves do not save a person.
They are signs that remind us of Jesus' body and blood.**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하며 사는 것입니다.

**What matters is believing in the blood of Jesus, repenting,
and living in Him.**

성찬식 때 눈물 흘리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If we shed tears during the Lord's Supper but our life does
not change, it is useless.**

**Whenever we eat, we must remember that the Lord died for
us and live for Him.**

하나님 말씀은 칼이며 불이며 물입니다.

말씀은 죄를 자르고, 더러운 것을 태우고, 마음을 씻습니다.

**The Word of God is a sword, fire, and water.
It cuts sin, burns what is unclean, and washes the heart.**

그러나 사람이 말씀을 거부하면 그대로 죄 안에 머물립니다.

But if a person rejects the Word, he remains in sin.

목사는 성도의 죄성을 말씀으로 잘라야 합니다.

과수원 주인이 열매 없는 가지를 잘라야 새순과 열매가 나듯,
말씀의 책망이 있어야 영혼이 삽니다.

A pastor must cut the sinful nature of the saints with the Word.

Just as an orchard keeper prunes fruitless branches so that new shoots and fruit may grow, rebuke through the Word is needed for souls to live.

책망을 받을 때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책망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채찍입니다(히12:5-6).

**When we are rebuked, we must not take offense.
Rebuke is not meant to kill but to save; it is the rod of love (Hebrews 12:5-6).**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히12:8).

**God disciplines those He loves.
If there is no discipline, a person is illegitimate (Hebrews 12:8).**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Therefore when we are disciplined, we must not despair but repent.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살인입니다(요일3:15).
우리가 주님께 죄의 빚을 탕감받았으니, 우리도 남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마18:23-35).

**Failing to forgive others is also murder (1 John 3:15).
Since we have had our debt of sin forgiven by the Lord, we must forgive the sins of others (Matthew 18:23-35).**

남을 미워하면 상대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죽습니다.
미움은 사탄에게 문을 여는 것이므로, 빨리 회개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When we hate someone, the other person does not die; our own spirit dies.

Hatred opens the door to Satan, so we must quickly repent and forgive.

영생을 믿는 자는 원수까지 용서하려고 애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One who believes in eternal life strives to forgive even enemies, because Jesus forgave our sins on the cross.

마지막 때에는 동성애, 음란, 술 취함, 우상숭배, 거짓 교리, 거짓 예언이 더욱 강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가 가득 차면 심판이 임합니다.

In the last days, homosexuality, immorality, drunkenness, idolatry, false doctrine, and false prophecy grow stronger. When sin becomes full like Sodom and Gomorrah, judgment comes.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시대는 분별해야 합니다(마24장).
성령 받은 사람은 회개하라, 예수께 돌아오라, 천국을 준비하라
외쳐야 합니다.

No one knows the day or hour, but we must discern the times (Matthew 24).

Those who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must cry out: Repent, return to Jesus, and prepare for heaven.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요14:6).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요3:13).

Jesus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John 14:6).

No one has ascended into heaven except the Son of Man who came down from heaven (John 3:13).

그러므로 천국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Therefore the only way to heaven is Jesus.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사십 일 동안 이 땅에 보이셨고(행1:3), 승천하신 후 마가 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믿는 자와 함께하십니다.

After His death and resurrection, Jesus appeared on earth for forty days (Acts 1:3), and after ascending, He came as the Holy Spirit in the upper room.

Even now He is with believers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십니다(요14:26).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는 사람의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When the Holy Spirit comes, He teaches and reminds us of the words of Jesus (John 14:26).

Therefore one who has received the Holy Spirit must hold to Jesus' Word, not human doctrine.

말씀을 알면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사람의 말, 예언자의 말, 목사의 말, 교리의 말에 흔들립니다.

If we know the Word, we will not be deceived.

If we do not know the Word, we will be shaken by the words of people, prophets, pastors, and doctrines.

사람의 지혜는 세상에서 잠시 유익할 수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영생의 길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Human wisdom may be useful for a short time in the world, but it cannot save the soul.

The way of eternal life is to hold to Jesus Christ, whom the Scriptures testify about.

교회는 천국 가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헌금도, 봉사도, 전도도 천국과 영혼 구원을 위해 해야 합니다.

The church is the place where we learn the way to heaven. Giving, service, and evangelism must all be for heaven and the salvation of souls.

천국을 믿지 않는 헌금과 봉사는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Giving and service without faith in heaven can become self-righteousness.

십일조와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며, 사람의 명예나 교회 자랑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Tithes and offerings are given with gratitude by those who believe in the kingdom of God.

They must be used to save souls, not to glorify people or boast in a church.

목사는 성도와 예수님 사이에서 길을 안내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딤후2:5).

A pastor is only a tool that guides the saints to Jesus. The only eternal mediator is Jesus (1 Timothy 2:5).

목사가 자신을 중보자 자리에 앉히면 성도를 우상숭배로 이끕니다.

If a pastor places himself in the mediator's seat, he leads the saints into idolatry.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기보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고전**3:6-7**).

**God uses us as His tools rather than working alone.
God sows, God waters, and God makes things grow (1
Corinthians 3:6-7).**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뿌리게 하시고 영혼을
거두게 하시며, 그 일에 상을 주십니다.

**We are nothing.
Yet God allows us to sow the gospel and gather souls
through us, and He gives rewards for that work.**

복음을 뿌리는 자는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전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으면 천국이라는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One who sows the gospel must proclaim that there is no
savior except Jesus.
He must clearly preach the gospel that without repentance
there is hell, and through cleansing by Jesus' blood there is
heaven.**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뒤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While we are alive, there is an opportunity to repent.
But after death, once a soul falls into hell, there is no way to
repent again.**

그러므로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Therefore we must repent today.

사람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납니다.
말씀이 마음에 박힌 자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붙잡지만, 말씀이 없는 자는 두려움에 흔들립니다.

**Before death, a person's faith is revealed as true or false.
One whose heart is fixed in the Word holds onto Jesus even before death, but one without the Word is shaken by fear.**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생명의 부활을 입고 천국으로 갑니다.

For those in Jesus, death is not the end but the beginning of eternal life.

The body returns to dust, but the soul receives the resurrection of life and goes to heaven.

영생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피를 믿고, 회개와 순종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Eternal life is knowing Jesus Christ, the true God, believing in His blood, and keeping the faith to the end through repentance and obedience.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 회개하고, 천국 가기 위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잃으면 신앙은 빈 껍데기가 됩니다.

We believe in Jesus to go to heaven, repent to go to heaven, and obey the Word to go to heaven.

If we lose this purpose, faith becomes an empty shell.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끝까지 순종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Father God, thank You for showing us the way of eternal life. Help us rely on the blood of Jesus Christ and repent. Let us understand the Word through the Holy Spirit, obey to the end, and enter heaven. Amen.